

소비자의 복지*

- 소비생활수준의 개념 및 척도개발을 중심으로 -

Consumer's Well-being:

The Conceptualization and the Development of Consumption Life Level Scale

C&C 연구원

장 현 선**

C&C Senior Research Engineer

Chang, Hyun-Sun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create a tool which can identify the concept of consumption life level and to develop a standardized scale to measure consumption life level. Based on it, the concept and perspective of consumption life level was formed and then the scale for measuring it was developed. To develop the scale, the scale was firstly formed by extracting questions through a literature survey, and verifying validity through experts' opinions. Then the final scale was developed by conducting a questionnaire survey for consumers.

A preliminary 27-item scale was develop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1000 consumers responded to an online survey using the preliminary scale. This research was made with the intention of not only supplying academic data on the consumer's consumption life level but also understanding the consumer's basic behavior patterns. Then a series of tests: test-retest, item-to-total correlation, and Cronbach's reliability coefficient and facto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urvey data and the final 20-item scale was constructed in the end. The consumer's consumption life level scale consisted of 4 factors.

▲주요어(Key Words) : 소비생활수준(consumption life level), 소비수준(consumption level), 척도개발(developing standards)

I. 서론

현재 한국사회는 소비의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과거 근검절약이 소비의 미덕이 되던 시대는 지나갔고 각 소비자는 자신만의 소비를 통해 자아와 정체성을 표출하고 있다. 절제된 소비만을 강조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소비를 통해 또 다른 자아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점진적인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소비생활

그 자체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부각되게 되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미처 적응의 준비를 하지 못한 소비자가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다양한 문제들을 초래하고 있다. 본인의 소비생활 수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소비로 인한 여러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으며 그러한 소비자들의 문제가 개인 및 가정과 국가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의 소비생활수준을 상향 인식하여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소비로 인한 새로운 사회문제를 겪게 된 것이다. 능력에서 벗어난 개인의 소비가 사회전체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구 신용 불량자) 300만 시대에 이르렀고, 개인의 신용을 포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551-C00004)

** 주저자·교신저자 : 장현선 (E-mail : rona3@korea.com)

기하는 개인 워크아웃 이용자가 과다하여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소비생활을 만족시키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적정치 못한 소비를 통해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택하는 등 그야말로 소비의 문제가 한 개인의 삶 전체를 뒤바꾸기도 한다. 소비문제는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으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소비자들이 일부 소수 대상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개인 소비자의 불량한 신용소비가 사회전체에 누적되어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생활수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소비자의 작은 실수가 모여서 결국은 한 나라의 경제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개인의 소비가 한 나라의 경제 문제까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때 소비생활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생활수준의 현주소가 어디 인지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데 걱정하고 균형 있는 소비생활수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은 결국 또 다른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낳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현재의 소비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향후의 잠재적 소비자에게까지 문제가 될 수 있다. 각 소비자는 자신의 소득에 맞춰 적정하고 어느 한 쪽에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소비생활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자신의 소비생활수준을 잘 유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에서는 지출된 화폐의 총량(윤정혜 · 성영애, 1998)이나 각 비목에 지출된 화폐의 양(두경자, 1999) 혹은 소유한 제품의 목록으로 소비수준을 파악하거나 소유하고 싶은 품목(손상희, 2001)으로 소비표준을 파악하는 등 물리적 잣대로 소비의 내용을 다뤘을 뿐 소비생활 전반을 파악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그간의 연구는 나라 전체의 연도별 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객관적 경제지표를 이용하는 등 거시적 연구가 진행되어 개인 소비자의 소비생활수준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객관적 경제지표 및 소비수준이나 표준과 같은 단일 지표를 이용한 척도로는 소비자들의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소비생활은 지출된 화폐의 양이나 소유품목과 같은 물리적 척도 이상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비생활의 함의를 표현할 수 있는 '소비생활수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고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소비생활의 내용을 파악하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여 소비생활 모습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소비자 정책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한다. 더불어 소비자 스스로 본인의

소비생활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함으로써 바람직한 소비생활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자신의 소비생활수준에 알맞은 소비생활을 유도함으로써 각 소비자의 안정은 물론 국가 경제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안정된 소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개인 워크아웃, 개인파산과 같은 개별 소비자의 문제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소비생활수준 관련 개념

소비생활수준은 선행연구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 본 논문에서 새롭게 제안하였다. 그간의 연구에서 사용한 유사한 용어로 소비수준, 소비표준, 생활수준, 생활표준 등의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소비수준 및 표준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의 최초 시도는 Davis(1945)라고 할 수 있다. Davis(1945)는 소비표준(standard of consumption)을 도달하고자 하는 소비생활의 목표가 구체화된 것으로 소비표준을 세운다는 것은 소비의 규모와 소비지출간의 균형 있는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을 포함하게 되며, 소비수준(level of consumption)은 한 시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거나 누리고 있는 실제적인 소비생활을 나타내주는 개념으로 일정기간 동안에 가계가 실질적으로 획득·사용하는 총 재화와 용역의 정도로 하나의 지표로 표현되는 현상적 개념으로 소비표준은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혹은 소비형태 면에서 가계가 실현가능성을 내포한 추구하고 바라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수준이라고 정의 하였다. 소비표준은 현재의 소비상태를 나타내기보다는 어떤 소비상태여야 한다는 규범적 의미를 가진 개념으로 가계의 소비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생활수준(level of living)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생활상태의 정도로 정의 할 수 있다. 생활의 정도를 생활비(소비 지출액)의 실질가치의 대소(大小)로 측정된 것이 소비수준이며 흔히 생활수준을 소비수준에서 보려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생활수준은 이보다 넓은 개념이며, 소비 또는 소득, 보유자산 이외에 사회적·자연적 환경,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 공해·사고 등의 손실적인 면 등, 여러 요인에 관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생활표준(standard of living)은 어떤 생활양식에 대한 태도나 그것을 간주하는 방식, 혹은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이며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에 대한 하나의 주관적인 견해이고, 재화를 필수적/비 필수적으로 구분 짓고 우리의 물질생활에

대한 만족/불만족을 결정짓는 것이다(Kyrk, 1923). 우리가 실제로 누리는 생활수준(level of living)보다 상위의 개념으로서 소비자가 매일 내리는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좌우하는 힘으로 간주되고 일정한 시대의 한 사회전체에서 공통적인 것 일수도 있고, 하위문화집단별로 다를 수도 있다.

이상의 개념을 토대로 소비수준은 현재의 소비의 정도로 현 소비상황을 실질적으로 나타내고, 소비표준은 지향하고 누리고 싶은 소비수준이며, 생활수준은 소비보다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서 현재의 소비생활을 포함한 생활전반을 나타내고, 생활표준은 나아가 도달하고픈 최종 생활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생활수준'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고 소비자의 소비생활전반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써 각 소비자가 자신의 소비생활을 소득에 맞춰 적정하고 특정영역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 있고 계획적으로 소비함으로써 자신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는 정도로 간주하고자 한다.

2. 소비생활수준 관련 측정

소비생활수준과 관련된 소비수준, 소비표준, 생활수준, 생활표준 등의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방법을 고찰해 보기로 하겠다. 측정방법은 객관적 지표인 경제적 지수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1) 소비수준의 측정

소비수준은 '한 시점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경험하거나 누리고 있는 실제적인 소비생활을 나타내주는 개념(Davis, 1945)으로 일정기간동안에 가계가 실제적으로 획득, 사용하는 총 재화와 용역의 정도로 하나의 지표로 표현되는 현상적 개념이다. 측정방법은 소비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구입, 소비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기준시점과 비교하여 나타낸 것으로 세 가지 산출방법이 있다. 가계조사에 따른 것, 국민소득 조사에 의한 것(국민소득 통계의 개인소비지출의 총액을 인구로 나누어 국민 1인당 1년간의 소비 지출액을 산출), 생활물자 및 서비스공급량 조사(주된 생활물자나 서비스에 대하여 국내 소비용으로 출하된 양을 추계)에 의한 것이다.

국내의 소비수준 측정에 관한 연구(윤정혜 · 성영애, 1998)의 경우 도시가계 연보를 기초로 한 지출비목별 측정이 가능하다. 지출비목은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비, 교육비, 광열비, 보건위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잡비 등이며 측정방법은 지불된 화폐단위를 근거로 산출하는 방법(도시가계 연보)이 있다. 또한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지출비목별 소비수준을 알아보는 방법(두경자, 1999)이 있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재화의 보유수준을 조사하는 방법(손

상희, 2001)도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측정방법들을 고찰해보면 많은 연구(윤정혜 · 성영애, 1998; 임정빈 · 양연선, 2000)들이 소비수준을 측정하는 데에 통계청의 『한국 가계 소비구조의 시계열 분석』을 이용하였다. 대표적 자료로 도시 가계연보는 도시가계조사를 위한 것으로 도시에 거주하는 2인 이상의 정상적인 가계수지 파악이 가능한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수준 실태와 그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1963년부터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 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육비, 교통통신비, 개인교통비, 기타소비지출비, 잡비의 항목을 조사하였다.

또한 농가경제조사 결과보고가 사용되고 있는데(최현자, 2001) 이는 농가경제조사를 위한 것으로 일정면적 이상(10a) 경지를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는 가구를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한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농가경제구조 및 경영실태 변화추이를 파악하고 농가소득, 소비수준, 노동실태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1963년부터 농림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이관받아 수행되어 왔다. 식료품비, 주거·가구 및 가사용품비, 광열·수도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등의 항목을 조사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개인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생계비 가운데 비목별 지출비중에 대해 주부가 인지한 주관적인 가계의 소비수준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두경자, 1999)하기도 하였다. 비목을 보면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비, 교육비, 광열비, 보건위생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잡비가 있다.

그 외에도 각 개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재화의 보유수준을 조사하는 방법(손상희, 1998)도 있다. 구체적으로 가정생활을 여섯 가지 소비영역, 즉 주생활, 식생활, 가족위생, 가족여가, 정보생활 및 이동영역으로 나누어 가계의 소비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분야에서 선별된 재화의 보유수준을 조사하였다.

2) 소비표준의 측정

소비표준은 양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 혹은 소비형태면에 있어서 가계가 실현가능성을 내포한 추구하고 바라는 재화와 용역의 소비수준을 말한다.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를 비교하여 한국가계의 소비표준을 설정하려는 연구(윤정혜 · 성영애, 1998)에 따르면 소비구조의 측정을 위해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시계열 분석에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를 이용하였고, 일본의 경우 총무청 통계국의 가계조사연보, 미국의 경우 Consumer Expenditure Survey를 이용하였다.

또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인지를 이용한 소비표준 측정방

법(손상희, 2001)으로는 소비자 개인을 대상으로 가족이 원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화와 현재는 없으나 언젠가는 꼭 갖추고 싶다고 한 재화의 집합을 소비표준으로 간주하고 설문지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국외의 소비표준 연구(Suranyi-Unger, 1981)의 측정방법을 보면 가계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지출 방식에 있어서 유사한 집단을 규명하고 이들을 각각의 직업계층 내에서 공통적인 소비양식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표준계층으로 분류함으로써 소비표준을 연구하였다.

3) 생활수준의 측정

생활수준은 소비수준보다 넓은 개념이며, 소비 또는 소득, 보유자산 이외에 사회적·자연적 환경, 노동시간과 노동 강도, 공해·사고 등의 손실적인 면 등, 여러 요인에 관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실제문제로서는 이들 요인을 공통의 척도를 가진 수량으로서 측정하고, 합리적인 가중치를 안배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기 때문에, 몇 가지 지표를 알맞게 짜 맞추거나, 소득수준 또는 소비수준으로 대용하는 것이다. 이에 사용되는 지표로는 식료품·의류·주택·보건위생·교육문화·사회(간접)자본 등이 채택된다.

4) 생활표준의 측정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실시한 방법(Hefferan, 1987)으로 4인 가계의 총 소비지출 수준의 중앙치를 미국 사회에서 전형적인 가족의 생활표준이라고 보고, 이를 보편적 가족표준으로 간주하였다. 그 외 생활표준에 대한 연구는 설화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연구(김기옥, 1997)가 있는데, 연구대상이 직접 이야기를 엮어나가도록 하는 설화법을 사용하여 미국에 단기 방문한 한국인 12명을 대상으로 소비생활이야기에 나타난 생활표준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생활표준을 질적 접근법으로 연구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소비수준 및 표준, 생활표준 등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저마다 다른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는 각각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척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3. 소비생활수준 관련 선행연구의 고찰

소비생활수준은 새롭게 제안한 용어로 관련 선행연구가 부재하므로 소비수준, 소비표준, 생활수준, 생활표준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척도개발 중심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비수준 및 표준 등을 지표로 소비계층에 대한 연구나 소비표준 설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척도개발을 연구 주제로 삼아 논의된 연구는 없으며 아래의 연구들이 비교적 본 논문과 관련성이 있는 소비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 연구들이라고 하겠다.

윤정혜·성영애(1998)는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비교를 통한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방향을 제시하였으며 1인당 GNP 1만불 시점의 한·일·미 가계 소비구조의 비교, 1995년도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 연령계층별, 소득계층별 소비구조 비교를 하였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가계 소비구조의 시계열 분석은 통계청의 1991, 1993, 1995년의 도시가계연보, 1인당 GNP 1만불 시점의 한·일·미 가계 소비구조 비교를 위해서는 통계청의 1995년의 도시가계연보와 일본총무청 통계국의 1984년도 가계조사연보 이용, 1995년도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 비교와 한·일·미 가계의 소득계층별, 연령계층별 소비구조의 비교를 위해서는 도시가계연보(한국), 가계조사(일본), Consumer Expenditure Survey(미국)를 이용하였다.

두경자(1999)는 IMF관리체제 이전·이후의 가계소비수준 회복 정도와 영향변인을 조사하였다. 소비지출 비목간의 정확한 크기 분석보다는 총 생계비 가운데 비목별 지출 비중에 대해 주부가 인지한 주관적인 가계 소비수준을 측정하였다. 소비수준의 측정도구는 뉴우턴의 사다리식 만족감 측정도구를 적용하여 맨 아래 칸을 1, 맨 위칸을 5, 중간수준을 3으로 설정한 5단계의 사다리를 만들어 1.5점까지를 준 후 점수화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5단계의 소비수준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각각의 지출비목에 기입하도록 하였으며, IMF 이전의 소비수준을 비목별로 기입한 후 이와 비교하면서 IMF 이후의 소비수준 비목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손상희(2001)는 한국가계의 소비수준 및 표준 -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의 실현모색이란 연구주제 하에 주관적 인지도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가족이 원하는 생활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재화와, 현재는 없으나 언젠가는 꼭 갖추고 싶다고 한 재화의 집합을 소비표준으로 보고, 보유 또는 비 보유 재화에 대한 필수재 인식 정도와 비 보유 재화에 대한 열망 정도를 조사하여 가계의 소비표준을 파악하였다. 소비수준은 재화의 보유수준으로 보고 각 소비생활 영역별로 38종의 재화목록에 대해 보유여부를 조사하였다.

양연선·임정빈(2000)은 가구주 연령과 직업에 따른 적정 소비선을 연구하였다. 1996년 통계청 가구 소비실태조사 자료를 가계소득 산출식을 이용하여 현재가치의 총 가계 소득을 도출하고 실제임금과 임금상승률, 물가상승률, 이자율을 감안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국외의 연구로 Suranyi-Unger(1981)는 동일한 소비의 표준됨을 가진 표준계층의 존재에 대해 연구하여 1960-61년 가계소비지출 자료를 이용하여 소비지출 방식에 있어서 유사한 집단을 규명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사회에서는 직업에 따라 전문직 계층과 노무직 계층의 소비양식이 다르며, 이들은 각각의 직업계층 내에서 공통적인 소비양식을

고수하는 대표적인 두 개의 표준계층으로 나타났다.

Danielle 외(1986)는 지출과 가구생산에 기초한 가구의 소비수준을 조사하였다. 지출과 가구생산을 하나의 수치로 통합하여 소비수준을 측정하는 가능성과 그것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네덜란드의 1980년 예산조사와 시간사용에 관한 연구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이 연구에서 통합적 수치는 생활주기단계 혹은 수입수준보다는 가구의 크기의 차이에 의해 크게 달라짐을 발견하였다. 1980년에 행해진 예산조사와 시간 사용 연구라는 국가적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대략 300가구에서 1980년 한 달 동안의 모든 지출과 그 해 동안 절제된 지출과 소비의 지속성을 고려하였다. 시간사용 연구 데이터는 1980년 11월의 한 주 동안의 조사기간을 포괄하였고, 3000명의 12세 이상의 개인이 매일 15분 간격으로 그들이 그 동안 한 것을 기록하게 하였다. 두 조사는 일기를 이용하였다.

Fan, Stafford(1994)는 지출 구성비의 특성에 따라 소비지출 유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종, 연령, 편모가구 여부, 교육수준, 가구주 나이, 주부의 취업여부, 취업자 수 가구주 연령대 별 인원수, 주거지역 도시화 정도, 조사연도 등 연구에 포함된 대부분의 변수들이 유의한 변수임을 밝혔다.

그간의 연구는 소비자의 실제적인 소비생활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개발 중심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가 전체의 소비표준 설정방향을 제시하거나 가계 소비수준 회복정도와 영향변인 등을 조사하여 소비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는 가구주 연령과 직업에 따른 적정소비선이나 동일한 소비의 표준목음을 가진 표준계층의 존재에 대해 연구하여 사회전체를 이해하는 경제적 지표로 활용하였다고 하겠다. 그 이외에 지출과 가구의 생산에 기초한 가구 소비수준을 조사하거나 지출 구성비의 특성에 따라 소비지출 유형을 분석하여 국가 전체적인 가구의 소비수준의 대략을 파악하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4. 선행연구의 제한점과 소비생활수준의 측정

소비생활은 소비지출의 개념보다 넓은 통합적인 개념이다. 소비란 궁극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소비자들의 만족을 창출하기 위해서 시간과 자원을 결합시키는 모든 활동이므로 지출의 절대액수로만은 소비생활수준을 평가할 수 없다. 총 지출액수는 적정하다고 하여도 특정 비목에 치중한 소비생활을 한 나머지 다른 비목의 소비상태가 불량하다면 소비생활수준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소비생활수준은 소비자의 소비생활 전반을 보여줄 수 있는 통합적인 개념이어야 한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개념의 소비생활을 단일 차원으로 측정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으며 그 측정 자체에 한계가

있다.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은 그 측정에서도 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도시가계 연보를 기초로 한 지출비목별 측정(윤정혜·성영애, 1998),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지출비목별 소비수준(두경자, 1999),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재화의 보유수준(손상희, 2001) 등의 단일차원의 측정방법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일차원의 척도는 소비수준의 어느 한 단면만을 나타낼 뿐 소비생활수준 전반을 나타낸다고 할 수 없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소비생활 전반에 관한 소비생활수준의 측정은 시도되어지지 않았고, 경제적 지표나 객관적 지표를 통한 측정만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소비생활수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좀 더 포괄적이고 다차원적인 척도를 개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소비생활수준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 및 항목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소비생활수준이란 소비지출이나 소유품목과 같은 물리적 요소 이외에 소득에 비해 적정한 소비인가에 관한 소비적정성 측면, 지출 비목간의 균형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소비균형성 측면, 소비가 즉흥적 판단이나 충동적 구매가 아닌 계획되고 준비된 것인가의 소비 계획성을 측정하는 항목과 이러한 소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소비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었는가 소비욕구 충족성의 측면 등 다차원적인 각도에서 접근하여 다양한 차원의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비생활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를 다음과 같은 여러 차원에서 탐색하고자 한다.

1) 소비의 지출성

소비지출은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소비수준의 개념으로 각 가계의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대체로 통계청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과 가구가 보유한 재화의 품목을 조사하여 소비수준을 조사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소비지출은 소비수준의 전반적 수준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총 소비지출액과 비목별 소비지출 비중으로 파악할 수 있다. 총 소비 지출액을 파악함으로써 전반적 소비수준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비목별 소비 지출액을 비교함으로써 소비지출 성향을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다.

총 소비 지출액은 절대적 지출액수를 산출하여 측정하고, 비목별 지출액은 지출된 총 소비를 각 하위 비목으로 나누어 비목별 지출액을 파악한다. 소비수준의 총체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소비지출과 비목별 소비지출을 조사 한다.

2) 소비의 적정성

소비적정성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소비지출 정도가 적정인가에 관한 개념이다. 소비생활이 바람직한 선에서 유지되어 적정선을 지키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수준의 적정 소비선이란 각 소비자의 주관적 가치로 절대적인 적정선을 도출하여 합의에 이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선행 연구에서 적정 소비선을 산출하기 위한 시도는 꾸준히 이루어져왔는데 Hanna 등(1989; 1990; 1991, 1995)이 개발한 생애주기 저축 프로그램과 Ret-Zero 프로그램은 미국 통계청의 CES자료를 이용하여 지출이 다른 가계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를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출 뿐 아니라 적정 저축액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적정 소비 선은 생애주기의 실질 소비액수와 평생 소득(Optimal Consumption Line)의 개념을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지출 뿐 아니라 적정 저축액을 제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적정 소비 선은 생애주기의 실질 소비액수와 평생소득(Permanent Income)을 동시에 고려한 약수로 산출되며 추정된 두 액수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소비 적정선이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한가의 문제로서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적정비중을 파악하여 평가해야 하고 적정선의 선정에는 이론적 선행연구의 결과와 현재 실전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여 수렴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소비 적정선을 산출하게 된다면 현대 개인 소비자 및 가계에 소비수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으며 현재의 소비수준이 적정한가에 대한 대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현대의 소비에서 강조되는 항목으로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정한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서 소비 적정선을 고려하고 사회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적정비중을 파악해야 한다.

3) 소비의 균형성

소비균형성은 소비지출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비목 간에 균형을 이루는 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같은 액수의 총 지출을 하더라도 그 비목간의 균형이 어떠한가에 따라 각 가구의 소비생활수준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총 지출의 액수는 적정선에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위 비목간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그 가구의 소비생활 수준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소비자의 소비수준의 균형성 측면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가를 모색해야 한다. 소비 균형성은 소비지출 내역의 비목 간 분산도 혹은 역으로 집중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비의 충족성

소비 충족성은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소비가 궁극적으로 소비욕구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때 소비자는 소비생활을 통해 욕구충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현대 소비자는 소비를 통해 궁극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며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소비생활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현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소비로 인한 병리적인 문제들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소비 충족성을 이루고 있는 항목을 추출할 수 있다면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자의 소비욕구의 충족 정도를 파악 및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소비의 안정성

소비 안정성이란 소득의 항상성과 안정성을 통해 현재의 소비수준의 정도를 파악하는 개념이다. 항상성이란 일정한 소비수준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의 정도를 말하며 (Briggs, 1967) 안정성이란 경제적 안정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가계의 소비수준의 상태가 안정적인지를 파악하는 지표이다.

현재의 소비수준을 파악함과 동시에 향후 소비수준까지를 진단 및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일정한 소득, 즉 경상소득을 통하여 현재의 소비수준의 상태를 파악하고 안정성 여부를 진단할 수 있겠다. 안정된 소비 수준을 보이는 소비자라면 소비로 인한 문제점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기 때문이다.

6) 소비의 건전성

소비 건전성이란 현대 소비자의 소비에 있어서 효용성 이외의 사회 및 문화에 의해 동기 부여 받아지는 소비의 측면을 말한다. 경제적 효용이나 이성적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동인이 존재하며 이를 분석함으로써 소비상태(소비행동) 자체의 건전성 문제를 파악할 수 있다. 현대 소비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는 병적인 소비 과잉현상, 명품 집중현상, 목적이 뒤바뀐 소비행태 및 신용불량자 300만 시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현대소비자들만의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7) 소비의 계획성

소비의 계획성이란 현대 소비자 개인 및 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비가 즉흥적 판단이나 충동적 구매가 아닌 계획되고 준비된 것인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소비품목 및 항목에 따른 계획성 여부 및 준비성을 측정하여 현대 소비자들의 소비상태 및 소비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현대인의 소비가 단지 현재만을 위한 단편적인 소비가 아닌 미래를 계획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 및 척도를 제시해야 한다. 동일한 소비품목 및 항목이라 하더라도 소비 계획을 제대로 하였는가에 따라 소비행동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의 소비 계획성은 바쁜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는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절차

연구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척도문항 추출 단계: ①선행문헌 고찰 ②개방형 설문조사 ③FGI 인터뷰

① 선행문헌 고찰: 척도개발을 위한 일차적인 문항을 선별하는 작업으로 소비생활수준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총 망라하였다. '소비생활수준'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체계화 한 후 척도의 구체적 문항을 추출하였다. 소비생활수준 개념은 본 논문에서 처음 제시하는 개념이므로 선행연구를 찾을 수 없고 소비수준, 소비표준, 생활수준 등의 관련문헌을 조사하였다.

② 개방형 설문조사: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소비자들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경험 자료를 기초로 제작한 개방형 질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기보고식 경험 자료는 소비자학 전공자 3인의 검토를 거쳐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개방형으로 제작하여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구성하였다. A4용지 3매의 분량으로 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무응답 및 부실기재가 많은 2명을 제외하고 분석대상으로는 총 18부를 이용하였다.

③ FGI 인터뷰: 소비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은 일반 소비자 3명과 은행에서 채테크 상담업무를 맡고 있는 직장인 3명을 대상으로 FGI 인터뷰를 1회 실시하였으며, 인터뷰 시간은 평균 50-80분 정도 실시하였다.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를 유도하였으며 직장인의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의 소비생활에서 추구하고 있는 점, 소비생활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소비생활에서의 불만족 요소, 현재의 소비생활 모습 및 재정상태, 소비성향들을 주로 질문하였다. 일반 소비자는 30대 전업주부 1명, 40대 전업주부 1명, 40대 맞벌이 주부 1명이고 은행에 근무하는 직장인 소비자 3명은 20대 여성 직장인 1명, 30대 여성 직장인 2명이다.

위의 3가지 과정을 거쳐 척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문항을 총 27문항 추출하였다.

2) 전문가 집단 구성: 타당도 검증

3단계의 과정을 거쳐 추출된 총 27문항을 척도로 구성하

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최종 점검을 하였다. 전문가 집단은 소비자 가족학과 및 소비자학 관련 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6명으로 이메일을 통해 척도와 본 논문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얻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척도의 문항을 정제화 하였고,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 받았다. 항목의 모호함과 척도를 설명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3인 이상이 공통적으로 지적한 2문항을 삭제하였다. 이를 통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를 확보하고 최종 25문항이 선정되었다. 이를 설문지로 척도화 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3) 예비조사를 통한 신뢰도 검증

총 25문항을 각 항목은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표시하는 7점 리커트(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1주일 간격으로 재조사(test-retest)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문항의 모호함과 중복된 질문이라는 지적을 받은 1문항을 제외하고 25문항 중 총 24문항이 선별되었다.

4) 본 조사를 통한 척도문항 추출과 최종 척도 개발

재조사법을 이용한 예비조사를 통해 신뢰도를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소비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를 실시한 후 변별력 분석(Item analysis), 문항 분석(Item-to-total correlation), 크론바하(Cronbach's α)의 신뢰도 계수,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한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적절하지 않은 4문항을 삭제하고 최종 20문항이 추출되었다.

위의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1차적으로 추출한 27문항 중 최종 20문항이 척도의 구체적인 문항으로 선별되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PSS for Windows 12.0과 AMOS 6.0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실시하고, 척도 구성을 위해 변별력 분석(Item analysis), 문항분석(Item-to-total correlation), Cronbach's α,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 EFA)을 실시하였다. 또한 척도의 구성타당도, 수렴타당도,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AMOS 6.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3. 조사방법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소비생활수준 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기 위해 본 조사

<표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n=1000)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성별	남성	464(46.4)	월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81(8.1)
	여성	536(53.6)		100-200만원 미만	196(19.6)
직업	공무원	91(9.1)		200-300만원 미만	345(34.5)
	자영업	183(18.3)		300-400만원 미만	219(21.9)
	회사원	199(19.9)		400-500만원 미만	109(10.9)
	판매/서비스 직	86(8.6)		500만원 이상	50(5.0)
	전문직	112(11.2)	연령	20대	125(12.5)
	가정주부	294(29.4)		30대	364(36.4)
기타	35(3.5)	40대		366(36.6)	
		50대 이상		145(14.5)	
최종학력	중졸 이하	18(1.8)	거주지	서울특별시	362(36.2)
	고졸	315(31.5)		6개광역시	351(35.1)
	대졸	452(45.2)		중도시	146(14.6)
	대학원 이상	215(21.5)		소도시	141(14.1)
결혼여부	미혼 기혼	394(39.4) 606(60.6)	주관적 경제수준	상상층	18(1.8)
				상하층	109(10.9)
				중상층	312(31.2)
				중하층	365(36.5)
				하상층	195(19.6)
			하하층	1(0.1)	

에 앞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소비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성인 소비자로 한정하였다. 조사방법은 전문 온라인 조사 대행업체(www.embrain.com)를 통한 패널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패널들에게 특수 제작한 온라인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하지 않을 경우 대상 소비자의 연령 및 학력과 직업 등이 연구자의 주변으로 편중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표본 선정에 유의하였다. 또한 현재 소비생활을 스스로 영위하고 있는 성인소비를 조사대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학생 및 무직자는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연령은 20대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8년 8월 1일-7일(총 7일간)에 걸쳐 11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본 조사는 2008년 10월 4일-15일(12일간)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검증전문 데이터시스템(ISAS)을 이용하여 부실기재를 하거나 설문에 적합한 응답대상자가 아닌 경우 설문을 진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종료되도록 함으로써 최종 1000부의 설문을 모두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조사에 참여한 총 1000명의 소비자는 성별, 연령, 직업, 최종학력, 월평균 수입, 거주지, 결혼 유무,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경제수준 등을 인구통계적인 변인으로 사용했다.

성별은 남성보다 여성이 약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별 분포는 30-4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실제 소비생활을 본인 스스로 영위하고 있는 성인 소비자로 한정하여 학

생 및 수입이 없는 20대 초반의 소비자가 응답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교육기간이 길어지고 대학생들의 졸업연령이 20대 후반이 되고 있는 요즘의 현실에서 20대에 경제적 독립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고 30대가 되어서 소비의 주체가 되고 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최종학력은 대졸이 가장 많았으며 고학력이 많은 한국의 현실에서 자주 나타나는 연구결과이다. 고졸과 대졸이상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중졸이하는 전체의 약 2%로서 상당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직업은 학생과 무직, 군인의 경우 소비생활을 스스로 영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응답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가정주부 및 회사원과 자영업을 하고 있는 소비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생활을 실제 운영하고 있는 능동적인 주체라고 볼 수 있겠다. 결혼여부는 기혼의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학생과 군인들이 제외되어 20대가 비교적 적게 응답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월평균 수입은 200-300만원 미만의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00만원 미만과 500만원 이상의 경우는 미미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 살고 있는 응답자가 대다수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대도시에 살고 있는 소비자임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 조사업체의 패널들이 대체로 인터넷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대도시 거주자이기 때문이다.

상, 중, 하로 본인들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수준을

질문하였는데 본인이 중상층 또는 중하층이라고 응답한 소비자가 전체의 68%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들이 스스로의 생활수준을 중간층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스스로를 최 하류 수준인 하하층이라고 대답한 소비자와 최고 수준인 상상층이라고 응답한 소비자는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응답자의 평균적인 특성을 정리해보면 자영업 회사원, 가정주부 등의 직업에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 기혼, 200-400만원 미만의 월평균 수입을 가진 30-40대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 거주하며 본인의 주관적인 생활수준을 중류층으로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로 정리하였다.

IV. 연구결과

1. 소비생활수준 측정을 위한 척도문항 구성

본 연구는 소비생활을 주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척도의 구체적인 문항을 추출하였다. 관련 선행 문헌 연구 및 자기보고식 개방형 설문조사, FGI 인터뷰 등을 통해

소비의 지출성, 적정성, 균형성, 충족성, 안정성, 건전성, 계획성의 7가지 요인으로 구성된 총 27문항의 척도를 구성하였다. 소비자학 전문가 6인으로부터 안면타당도(face validity)를 검증 받은 후 이를 설문지로 척도화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일주일 간격을 두어 동일한 설문지로 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재조사 방식(test-retest)에 의해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고, 변별력 분석, 문항분석을 실시한 후 이중 부적합한 문항을 제외하고 최종 20개의 문항이 추출되었다.

구체적인 문항추출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1주일 간격으로 재조사법에 의해 1차 조사와 2차 조사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상관관계수가 0.5미만인 항목은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문항으로 간주하여 1차적으로 문항을 삭제하였다. 25번 문항이 삭제되었다.

둘째, 변별력 분석(item analysis)을 통해 문항의 변별력을 계산한 뒤 변별력이 0.5미만인 항목을 선별하였다. 7번, 14번 문항이 삭제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항분석(Item-to-total correlation)을 통해 각 요인과 항목간의 상관관계수를 산출하여 0.3미만인 항목을 추가로 삭제하였다. 12번, 15번 문항이 삭제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단계 재조사 검증에서는 1개의 문항

<표 2> 척도의 구성과 삭제된 문항

문항 분류	문항	1단계: 재조사법	2단계: 변별력	3단계: 문항 분석	비고
1. 소비의 적정성	1.나는 쓸 만큼 쓰면서 살고 있다.	.66	.58	.50	삭제
	2.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다.	.73	.63	.41	
	3.소비가 소득대비 너무 과하다.	.62	.66	.48	
	4.소비할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79	.65	.56	
	5.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	.57	.74	.37	
	6.나의 소비생활은 바람직한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63	.63	.45	
	7.나를 위한 소비를 충분히 하고 있다.	.51	.41	-	
	8.지금 나의 소비는 비교적 적절한 편이다.	.78	.74	.51	
2. 소비의 균형성	9. 특별히 옷 구입에 돈을 많이 지출한다.	.76	.78	.47	삭제
	10. 화장품 및 잡비의 지출이 소득 대비 너무 많다.	.83	.81	.42	
	11. 술 값 및 식비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73	.66	.36	
	12. 소비를 균형적으로 하고 있다.	.56	.78	.23	
	13. 한 곳에 치우쳐 소비하는 부분이 있다.	.72	.65	.39	
	14. 여러 항목을 쪼개어 소비하려고 노력한다.	.64	.39	-	
3. 소비의 충족성	15. 나의 소비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	.75	.67	.28	삭제
	16. 지금 나의 소비생활수준에 만족한다.	.78	.71	.40	
	17. 나의 소비생활은 내가 희망하던 수준이다.	.67	.75	.38	
	18. 소비로 인해 기쁨을 느끼는 적이 많다.	.52	.96	.39	
	19. 소비를 통해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	.58	.85	.42	
	20. 현재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67	.78	.40	
4. 소비의 계획성	21.구입을 하기 전 미리 계획을 세운다.	.53	.81	.41	삭제
	22.한 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 생활한다.	.66	.91	.48	
	23.가계부동의 지출 목록을 작성한다.	.57	.84	.46	
	24.사야할 목록을 작성한 후 장을 본다.	.53	.67	.50	
	25.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충동적으로 구입하는 편이다.	.30	-	-	

이 삭제되었으며, 2단계 변별력 검증에서도 2문항, 마지막인 3단계에서도 2개 문항이 삭제되었다. 총 5문항이 제거되어 최종 20문항만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2. 소비생활수준 측정을 위한 척도의 유목화: 탐색적 요인분석

예비조사와 문항 추출과정을 통해 정제된 최종 20문항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생활수준 측정을 위한 척도의 요인을 유목화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이겐 값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도록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Method)을 실시하고, 적교 회전(Varimax)방식에 의해 요인의 수를 지정하지 않고 회전시킨 결과 최종 2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4가지 요인으로 유목화 되었다.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의 지출성, 적정성, 균형성, 충족성, 안정성, 건전성, 계획성의 7개 요인이 도출되었으나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 4개의 요인이 전체분산의 약 75%를 설명하였다. 선행연구결과와는 다른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요인 1은 소비의 적정성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의 소비지출 정도가 적정한가에 관한 개념이다. 소비생활이 바람직한 선에서 유지되어 적정선을 지키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설문지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1단계 재조사법을 통해 0.5 미만의 값을 지닌 1개의 문항

이 삭제되어 총 7문항이 최종 개발되었다.

요인 2는 소비의 균형성으로 소비지출이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비목 간에 균형을 이루는 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같은 액수의 총 지출을 하더라도 그 비목간의 균형이 어떠한가에 따라 각 가구의 소비생활수준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총 지출의 액수는 적정선에서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하위 비목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소비생활 수준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소비의 균형성 요인은 총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조사법을 통해 0.5미만의 값을 지닌 1개의 문항이 삭제되고 문항분석을 통해 상관계수가 0.3 미만인 1개의 문항이 삭제되어 최종 4문항의 척도가 개발되었다.

요인 3은 소비의 충족성으로 소비생활을 통해 소비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를 반영하는 개념이다. 소비가 궁극적으로 소비욕구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볼 때 소비자는 소비생활을 통해 욕구충족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요인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총 6개의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3단계인 문항분석에서 0.3미만인 1개의 항목을 삭제하여 최종 5개의 척도가 개발되었다.

요인 4는 소비의 계획성으로 소비가 즉흥적 판단이나 충동적 구매가 아닌 계획되고 준비된 것인가를 측정하는 항목이다. 총 6개의 항목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으며 1단계인 재조사법에 의해 1개의 요인이, 3단계인 문항분석에 의해 또 다른 1개의 요인이 삭제되어 최종 4개 항목의 척도가 개발되었다.

<표 3> 요인분석 결과

	요인1 소비의 적정성	요인2 소비의 균형성	요인3 소비의 충족성	요인4 소비의 계획성	h ²	신뢰도계수
문항1	.89	.15	.26	.19	.74	.87
문항4	.87	.17	.24	.27	.68	
문항3	.78	.14	.13	.31	.77	
문항2	.72	.24	-.08	.31	.72	
문항6	.68	.18	.23	.26	.60	
문항8	.65	.21	.12	.07	.65	
문항5	.62	.23	.13	.04	.62	
문항10	.31	.86	.21	.11	.70	
문항13	.24	.70	.11	.14	.64	
문항11	.26	.66	.03	.31	.63	
문항9	.26	.61	.12	.21	.60	
문항16	.24	.38	.76	.19	.63	
문항17	.26	.09	.74	.16	.79	
문항18	.23	.04	.68	.30	.63	.62
문항20	.03	.02	.66	.24	.61	
문항19	.11	.15	.58	.22	.64	
문항23	.14	.16	.16	.70	.70	
문항22	.08	.21	.21	.68	.72	
문항21	.23	.30	.19	.64	.71	
문항24	.16	.15	.06	.58	.63	.73
아이겐 값	5.42	4.30	3.21	2.07		
전체분산(%)	26.45	22.16	20.33	7.52		

각 요인들의 신뢰도 계수는 요인 1이 .87, 요인2가 .70, 요인3이 .62, 요인 4가 .73로 비교적 높은 신뢰도 계수를 나타냈다. 요인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3. 구성타당도 분석 :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

소비생활수준 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로 얻은 요인 모형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6.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특정 가설을 설정하고, 이 자료에서 관찰되는 관계를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기법으로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는 사전지식이나 이론적인 결과를 가지고 모형을 검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총20개의 문항이 4개의 소비생활수준 측정을 위한 척도의 구성요인을 잘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각 문항을 해당되는 요인에만 부하되도록 하였으며 오차들 간에는 모두 서로 상관관계가 없고, 4개의 요인들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은 평가차원들의 항목 간 내적 일관성에 따라 설명이 가능하며, 수렴타당성의 평가는 요인부하 량과 표준오차의

검토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분석결과, 측정항목들과 해당 구성차원을 연결하는 요인 부하 량 값의 모든 영역이 .90이상으로 나타남으로써 수렴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차원이 서로 다른 척도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독립적인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살펴보았으며, 4개의 구성 개념 간의 상관관계가 0.5 미만의 값으로 나타남으로써 각 구성 개념간의 판별타당성 또한 입증되었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기초부합지수(GFI=Goodness of fit Index), 조정부합지수(AGFI=Adjusted GFI), 절대적 적합지수(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표준적합지수(NFI=Normed Fit Index:), 원소 간 평균차이(RMR=Root Mean Square Residual), 비교부합지수(CFI=Comparative of fit Index)를 살펴보았다. 전체 모델의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모델 적합도 부합지수가 권장치 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모두 부합되므로 모형이 적합하다는 것이 검증되었고, 이로써 측정모형에 대한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할 수 있었다. 모델의 확인된 요인구조 검증 모형 부합지수는 <표 4>와 같다. 그러므로 AMOS를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측정항목의 구성타당도와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 할 수 있었으며,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4개 요인의

<표 4> 소비생활수준 측정 모델의 확인된 요인구조 검증 모형 부합지수

	X^2	df	RMR	GFI	AGFI	NFI	CFI	RMSEA
모형부합지수	701.342	137	.94	.91	.91	.92	.93	.071
기준부합지수	-	-	.90이상	.90이상	.90이상	.90이상	.90이상	.80이하

<표 5> 최종척도 및 각 영역별 평균

문항 분류	척도 요인	구체적인 척도 문항(총 20문항)	평균(S.D)		F값
	소비의 적정성	나는 쓸 만큼 쓰면서 살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소비를 하고 있다. 소비가 소득 대비 너무 과하다. 소비를 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분수에 맞는 소비생활을 하고 있다. 나의 소비생활은 바람직한 선에서 유지되고 있다. 지금 나의 소비는 비교적 적절한 편이다.	4.90(1.01) 5.12(1.45) 4.21(1.31) 5.00(1.20) 6.21(1.12) 4.85(1.28) 5.63(1.03)	5.13 (1.10)	
소비의 균형성	특히 옷 구입에 돈을 많이 지출한다. 화장품 및 잡비의 지출이 소득 대비 너무 많다. 술 값 및 식비로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 한 곳에 치우쳐 소비하는 부분이 있다.	4.90(1.27) 3.97(1.63) 4.12(1.34) 4.12(1.21)	4.28 (1.36)		
소비의 충족성	지금 나의 소비생활수준에 만족한다. 나의 소비생활은 내가 희망하던 수준이다. 소비로 인해 기쁨을 느끼는 적이 많다. 소비를 통해 뿌듯함을 느끼곤 한다. 현재 나는 나의 생활에 만족한다.	3.11(1.33) 3.68(1.10) 4.05(1.01) 3.90(0.85) 4.02(1.01)	3.75 (1.06)		
소비의 계획성	구입을 하기 전 미리 계획을 세운다. 한 달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따져 생활한다. 가계부 등의 지출목록을 작성한다. 사야할 목록을 작성한 후 장을 본다.	3.02(1.35) 3.76(1.16) 2.99(1.17) 2.80(1.33)	3.14 (1.25)		

소비생활수준 측정을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4. 요인들 간의 평균값 비교 및 최종 척도문항

위에서 추출한 요인들의 평균값을 비교하기 위해 반복측정(repeated measurement designs)을 이용한 GLM을 사용하여 평균을 비교하였다. 반복측정은 동일한 피험자들을 상이한 처치조건에서 반복적으로 노출시킨 다음 처치조건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처치조건 간에 존재하는 오차 중에서 개인차에 따른 오차를 어느 정도 통제하기 때문에 처치 집단 간의 차이를 처치효과 차이로 해석할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는 장점이 있다(변찬진·문수백, 2000).

각 요인의 평균값은 소비의 적정성 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비의 균형성 요인, 소비의 충족성 요인, 소비의 계획성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를 살펴보면 각 요인들 간의 평균값은 소비의 적정성 요인과 소비의 균형성 요인의 경우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다양한 소비의 상황 등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 및 개인의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평균값이 달라질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개발된 최종 척도 및 각 영역별 평균은 <표 5>로 정리하였다.

V. 결론 및 제언

현대의 풍요로운 재화와 과학의 발전은 가능하지 않았던 많은 물품을 현실로 만들었고 대량생산은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확대시켜 소비생활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다원화되었다. 공장제 공업이 발달하지 않아 대량생산이 불가능했던 시절에는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 빈부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소비 물품이 제한되어 재화의 보유수준은 소비생활의 정도를 보여줄 수 있는 척도가 되었고, 지출비목별 액수는 소비생활의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지표가 되었다. 지출비목이 단조로웠고 주로 의식주에 의존하여 소비를 하였기 때문이다. 소비생활수준은 객관적, 물리적인 재화의 정도나 경제적인 척도에 근거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 소비생활의 범위가 확대되고 다원화되었기 때문에 소비생활을 파악하는 것은 단일항목 및 척도로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 해졌다. 재화의 목록은 더 이상 소비생활수준 정도를 가늠하는 근거로 알맞지 않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척도가 필요하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차원을 적용하여야 소비생활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생활수준'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소비의 적정성, 균형성, 충족성, 계획성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소비생활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측정 척

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선행 문헌고찰과 자기보고식 경험 자료를 기초로 제작된 개방형 질문을 통한 설문조사(20명 대상), FGI(6명 대상)를 통해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된 총 27문항의 소비생활수준 측정을 위한 문항을 선별하였고,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거쳐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소비생활수준 측정을 위한 최종 20 항목의 척도가 개발되었으며, 이들은 ①소비의 적정성 ②소비의 균형성 ③소비의 충족성 ④소비의 계획성의 4개 요인으로 유목화되었다. 예비조사는 1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본 조사는 온라인 조사 전문 기관을 통해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Cronbach's α 계수, 재조사법, 변별력분석, 문항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그리고 각 요인의 평균을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발된 척도의 모형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AMOS 6.0을 이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각 요인의 평균값을 살펴본 결과 소비의 적정성 요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비의 균형성, 소비의 충족성, 소비의 계획성 요인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통해 소비생활수준을 구성하는 요소로 소비의 지출성, 적정성, 균형성, 충족성, 안정성, 건전성, 계획성의 7가지 요소가 추출되었으나 통계적 검증결과 소비의 적정성을 비롯한 4가지 요소만이 최종 선정되고 나머지 3항목은 부적절한 요소로 판명되었다. 이를 통해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지출성, 안정성, 건전성 등의 요소는 비교적 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생활수준의 구성요소가 4요인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비생활수준을 단일한 척도로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본 연구의 주장을 검증할 수 있었다.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소득 대비 소비의 정도가 적정인가? 소비 비목 간에 균형을 이루는가? 소비생활을 통해 욕구를 충족하는가? 계획되고 준비된 소비생활을 하는가? 의 4가지 요소가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다.

개발된 척도는 소비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여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교육 및 계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할 수 있겠다. 자신의 소비생활수준 정도를 가늠하고, 건전성 상태를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응용하여 신용불량자의 소비생활 교육 시 본인의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하고 생활정도를 점검하는 자료로 활용하거나,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는 바람직한 가계경제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진단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 가족 복지학이나 사회복지학의 분야에서서 소외된 계층의 소비생활수준을 진단하거나 점검하는 자료로 발전시켜

각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하는 자료로 사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기연구로서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으며,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소비생활수준에 관한 개념 정의와 척도의 수정 및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연구결과의 활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체계적인 개념 도출을 위해서 심층적인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민속지학적 연구 방법 등과 같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내재되어 있는 여러 요인을 포괄할 수 있는 구성요소의 도출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소비생활수준 유형을 세분화하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초기 가정연구성요소는 7항목이었으나 통계적 검증결과 최종 4항목으로 도출되었다. 그러나 다양한 소비자 대상 및 상황에 적용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소비생활수준을 포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척도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열악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하여 자신의 소비생활수준정도를 자각할 수 있는 척도로 발전시켜 일상생활에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료가 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속연구에서는 척도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보충하여 총 20개의 측정 문항 중 몇 개 이상에 해당하면 소비생활수준 정도가 어떠한지를 평가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만든다면 교육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소비생활수준의 개념 및 척도 개발은 선행연구에서 시도되어지지 않은 영역이며 개념조차 정립되어있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와 달리 소비생활을 단일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 소비생활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과 소비생활수준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제안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개발된 척도는 선행연구를 통해 관련 요인들을 밝혀내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체계적인 척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나아가 척도라는 근원적인 지표를 제시함으로써 관련 소비자학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재 소비자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로 한국사회의 소비생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생활을 담당하고 있는 소비주체 뿐만 아니라 향후 소비 역할을 하게 될 잠재적 소비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자료가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기옥(1997). 우리나라 소비자가 추구하는 생활표준: 질적 접근법을 이용한 소비자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5-32.

두경자(1999). IMF 관리체제 이전 이후의 가계소비수준 회복정도와 영향변인 -주부의주관적 인지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87-97.

변찬진·문수백 (2000). 사회과학 연구를 위한 실험설계, 분석의 이해와 활용, 학지사.

손상희(1998). 농촌가계의 재무관리행동과 주관적 소비수준 *한국생활과학회지(충북가정학회지)*, **1(2)**, 21-34.

손상희(2001). 한국가계의 소비수준 및 표준: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실현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59-277.

윤정혜·성영애 (1998). 제23차 총회 및 학술대회 / 국가경제위기에 한국가정은 어떤 생활규범과 생활표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주제발표4 -소비구조 분석을 통한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 91-116.

윤정혜·성영애(1998). 한·일·미 가계의 소비구조 비교를 통한 한국가계의 소비표준설정 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55-168.

임정빈·양연선(2000). 가구주 연령과 직업에 따른 가계의 적정소비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59-277.

최현자(2000). 가구주의 직업유형에 따른 소비지출양식의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67-183.

Briggs (1967). Changes in concepts of income adequacy over the last century,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291-299.

Danielle & Kasper, H (1986). Consumption level of households based on expenditure and household production, *Journal of Consumer Studies and Home Economics*, 10.

Davis, J. S (1945). Standards and Content of Living,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5, 1-15.

Diwan, R (2000). Relational wealth and the quality of life. *Journal of Socio-Economics*, 29.

Fan, Stafford (1994). The Underclass: Definition and measurement, *Science* (April).

Hanna, S (1989). Family Spending Norms, *American Council on Consumer Interests*.

Hefferan, C (1987). Family budget guidelines, *Family Economics Review*, 4, 1-9.

Kyrk, H (1923). *A theory of consumption*, Boston: Houghton Mifflin.

Kyrk, H (1933). *Economic problems of the family*, New York: Harper & Brothers.

Surany-Unger, T. Jr (1981). Consumer behavior and Consumer Well-Being: An Economist's Diges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8, 132-143.

접수일 : 2010년 07월 15일

심사일 : 2010년 08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0년 12월 20일